

질문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된다고 하는데 중학교 몇 학년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합한지, 그리고 수업 및 평가는 어떻게 달라져야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요?

답변

외삼중학교 박영아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작년부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올해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년까지 연구학교가 운영되고 2016년 3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실시될 것으로 교육부가 예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비롯하여 많은 중학교 교사들이 걱정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되며 저의 경험이 선생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자유학기제 운영 학년

저희 학교를 비롯하여 작년부터 운영하는 연구학교들은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의 연구학교들은 2학년 1학기 또는 2학년 2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몇 학년이 더 적합한지는 연구학교 운영 보고가 나오고 교육부가 최종 결정하겠지만 1년간 운영해본 입장에서는 1학년 2학기에 많은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기대와 걱정을 안고 입학한 중학교 1학년 학

생들이 새로운 중학교 생활에 한 학기 적응한 후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것이 학교생활에 적응도 더 잘 하고 교우관계도 원활해지며 사춘기를 좀 더 유연하게 보내는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수업방법이 다양하게 바뀌고 선택프로그램과 진로체험 등이 늘어나 활동위주의 학교생활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고 실행하며 새로운 방식의 평가까지 교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학생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보람이 있어 기꺼이 노력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2. 자유학기제 수업과 평가

자유학기제는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창의력과 인성을 성장시켜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찾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중심, 활동중심의 수업으로 변화하는데 교사들의 마인드가 변해야 하며 지필평가를 하지 않는 대신 다양한 형태의 수행평가 및 과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수업시간 중에 자연스럽게 인성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별 학습보다는 모둠학습의 형태로 함께 활동하며 협동하고 자신의 역할을 성취하는 협력학습모델이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평가도 결과보다 과정중심의 수행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학생들의 동료평가 및 자기평가도 함께 이루어져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핵심역량으로서 창의력과 인성을 함께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수업과 평가가 구안되고 준비되어야 학생들의 행복한 자유학기제가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